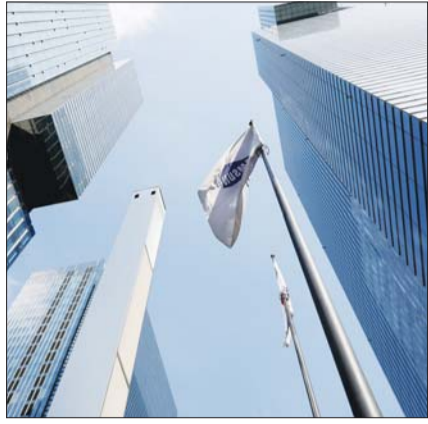


삼성전자 총파업... 반도체 '필수공정' 가동 여부가 변수

수원지법, 20일까지 가처분 판단
반도체 공정 안전보호시설 쟁점

사측 "안전인력 이탈엔 사고 우려"
노조 "적법한 쟁의행위 진행" 반박

삼바 선례 따라 일부 인용 가능성
결과 따라 총파업 동력도 출렁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뉴스1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 가처분 결과에 업계 시선이 쏠린다.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총파업 향방이 갈리는 가운데 노동법상 파업 중에도 반드시 가동해야 하는 '필수공정' 규정이 이번 가처분의 분수령으로 부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전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을 마쳤다. 재판부는 21일 총파업 예고일 이전인 20일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이르면 앞당겨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심문의 핵심 쟁점은 반도체 생산 시설이 노동조합법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정

이 유독성·가연성 가스와 강산·강염기를 대량 취급하는 만큼 안전인력이 이탈할 경우 중대사고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8년 평택캠퍼스에서 30분 미만의 정전이 500억 원 상당의 피해로 이어진 사례를 들어 생산시설 운영 중단 시 손실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서도 쟁의행위로 생산시설이 멈춘 사례는 드물다는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반도체 사업장이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제조·기

술 인력도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심문 직후 "협박이나 폭행, 생산시설 점거는 없을 것"이라며 "적법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웨이퍼 변질 우려에 대해서도 "변질 방지 방법은 많다. 다만 변질 방지를 위해 파업 기간 생산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업계가 이번 가처분에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인용되면 노조 쟁의행위가 위법이 되고 기각되면 파업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용과 기각의 차이가 엄청나다"며 "인용될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가 위법하다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어서 파업 명분이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기각될 경우 노조는 파업의 정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인정받는 셈이 돼 총파업 동력이 한층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의 법리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노동조합법에는 파업 중에도 근로자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설비는 작동해야 하고, 원료가 부패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이 명시돼 있다"며 "반도체 공정 중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필수작업공정에 대해서는 파업 기간에도 가동해야 한다는 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두 가지 문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적어 법원이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선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23일 인천지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료 변질을 막기 위한 필수 유지 작업만 허용 하되 신규 생산 공정은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가처분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7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도 파업 시 DS부문 매출이 최대 5억 9000만 달러(약 8조 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편 중노위는 이날 오는 16일 사후조정 재개를 노조에 공식 제안했다.

김재원 초기업노조 정책기획국장은 "현재로서는 협상 계획이 없다"며 거부하면서도 "성과급 투명화·상한폐지·제도화 안건이 있으면 대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총파업의 향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업계의 시선이 법원에 쏠려 있다. 노조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정의선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양재사옥에서 열린 로비 스토리 타운홀에서 새 로비 기획에 참여한 담당자들과 함께 토크 세션을 진행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빠르게 배우되 안전·품질 강화” 정의선, 미래차 경쟁해법 제시

〈현대차그룹 회장〉

양재사옥 타운홀서 전략 공유
테슬라·BYD 학습 필요 강조
자율주행 경쟁 속 안전 최우선

“빠르게 배우되 현대차만의 강점인 안전과 품질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사옥에서 진행된 ‘로비 스토리 타운홀’ 행사에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변화와 중동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는데 있어 ‘기술과 안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회장은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테슬라와 BYD 등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경계와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전 세계 어느 회사라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한다”며 “고객들이 좋아할 수 있는 기능과 상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많이 긴장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오토차이나 2026’ 행사장을 방문해 BYD를 비롯해 화웨이, 지리차, 샤오미 등 주요 업체들의 부스를 둘러봤다. 정

회장은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중국 분들은 기술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크고 중국 정부의 지원도 많아 저희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모빌리티 업체들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경쟁과 관련해 ‘안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 회장은 “자율주행은 중국과 테슬라가 굉장히 빠르게 하고 웨이모도 잘 하고 있고 우리는 이번에 광주에 200대의 자율주행차를 선행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며 “기술은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글로벌 자동차 시장 경쟁 심화에 대한 대응 전략도 밝혔다. 정 회장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체질 개선과 신기술 강화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특정 경쟁 차종을 겨냥하기 보다는 현대차와 기아가 개발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양성운 기자 ysw@



metro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

오늘의 당신이 걱정 없도록, 내일의 당신이 든든하도록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무)을 선물하세요



간병 부담 덜어주는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무)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 또는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간병인지원금특약]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해당 특약의 '간병인지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를 지급합니다. 이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 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적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생명보험회심의필 제 2026-03061호 (2026-04-09 ~ 2027-04-08) 준법감시인 확인필 CS 26-04-2025

www.hanwhalife.com